

주민 수용성 크게 향상

군산시, 수상 태양광 사업 시민토론회 성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론화를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전·후설문조사결과 시민의식변화와 함께 주민수용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 20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공론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군산대 협조를 받아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진행됐다. 시작 전·후 설문조사 결과 토론회가 끝난 후 긍정적인 답변이 72%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고, 부정적인 답변은 절반으로 줄어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시민 의식변화와 함께 주민수용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시민토론회는 지난 달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 응답자 중 참가 지원자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123명이 참석했다. 1차·2차 설문조사와 수상태양광의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 안정성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의 '수상태양광 사업의 주요 이슈'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6인의 각 분야 전문가가 수상태양광 관련 주제를 발표하고, 시민 토론회의 열린 토론이 펼쳐졌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시민들은 15

개 토론실에 10여 명씩 모여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는 강연을 시청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각 토론실에 진행자를 배치해 전문가 발표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했다.

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팀과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군산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사업의 사회 수용성 향상을 위한 상호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지역주도형 수상 태양광 사업은 육상 태양광 사업과 같은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되며, 지난해 산업부의 전기사업 허가과 환경영향평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의 기록 유산들을 보존하기 위해 개최한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됐다.

'숨겨 왔던 너의 기록을 보여줘'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시상식 개최

익산의 기록 유산들을 보존하기 위해 개최한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됐다.

익산시는 지난 28일 '숨겨 왔던 너의 기록을 보여줘'를 주제로 개최한 제1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8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된 제1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남궁승영 씨로 광복군 주령지대(남영)에서 1940년대 함열역으로 보낸 광복군이 사용한 포대와 포식을 제출했다. 최우수상은 1900년대 이리농림학교 졸업기념사진첩, 임업실습일지 등의 기록을 제출한 한상득, 춘포면 도정공장 운영기록을 제출한 서문근 씨가 수상했다.

이 밖에도 우수상 4명과 장려상 10명 등 총 17명이 수상했다.

시는 이번 수상작들을 포함한 수집된 민간기록물들을 도록으로 제작하고 다음 달에는 익산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들은 "앞으로도 민간기록물 사업을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집된 기록물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시민기록관이 설립되길 바란다"며 "우리가 민간기록물이 잘 수집·보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상을 수상한 남궁승영 씨는 상금 100만원 전액 기탁을 통해 마스크 7천매를 아동보육시설 6개소에 지원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에 뜻깊은 마침표를 더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막바지 '담금질'

오택림 부시장, 국회 의원실 찾아 사업 반영 호소

오택림 부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실과 기획재정부 주요인사 등을 만나 내년도 예산 안에 역대 최대액 확보를 위한 막바지 힘을 쏟고 있다.

국회 예산심의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익산시 중점사업들의 운영이 결정되는 중대한 시기로 한밤도, 김수용 의원을 방문하여 막판 전략을 정리하고, 이어 이원택, 신영대 의원을 찾아 중점사업을 설명하면서 막판 지원을 호소하였다.

이날 건의한 사업을 보면 동북아 식품수도로서 식품문화·관광 명소화를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신약개발

지원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환경오염 피해의 대표적 치유·회복 모델 사업인 ▲환경오염 피해지역(익산 장점마을) 친환경 복원사업, 발달장애인들의 배움의 기회와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전라권 청소년의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 향상을 위한 ▲국립금강 청소년다목적센터 건립 등 핵심 신규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 건의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주요인사를 찾아 중점사업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반영을 적극 검토해 주길 부탁

했다.

오택림 부시장은 "해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다해 왔지만, 올 연말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후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더욱 중요한 시점으로 국회의 예산심의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회 단계 심의회에 대비하여 지난 10월부터 전라북도도와 함께 국회 상주관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 중이다.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공조체계를 끈끈히 유지해 2022년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12월 2일까지 전방위적 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 육상팀, 재능기부 펼쳐

군산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군산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재능기부 활동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산시청 육상팀 지도자와 선수들이 운동에 관심있는 일반인, 동호인을 직접 지도하며 부상방지 스트레칭, 순발력 향상 프로그램, 육상기초훈련 등 엘리트 선수들의 훈련방법과 운동스킬을 전수하고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재능기부 활동을 함께했다.

특히 이번 재능기부 활동은 시민들

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독려를 목적으로 군산체력인증센터와 함께 '스포츠헤링 체력증진교실'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누적 참여인원은 300여명에 달했다. 참여자들은 군산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해 사전 개인별 체력진단을 실시한 뒤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받고 프로그램 참여 기간동안 월명종합운동장에서 육상선수들의 전문 트레이닝을 지도 받았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과 군산체력인증센터는 참여자들과 함께 환경보호캠페인의 일환으로 매회 프로



그럼 종료 후 플로깅(쓰레기줍기와 걷기의 합성어)을 통해 몸과 마음을 모두 힐링하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다. /군산=한경봉 기자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나들이·현장학습 각광

익산 왕궁보석테마대표관광지가 다양한 테마를 체험할 수 있는 익산 대표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개장한 다이노키즈월드 중심에 더블돌 슬라이드 등 공룡테마공원까지 액티브한 놀이시설들을 갖춰 가족 나들이객 뿐만 아니라 전복 지역 초·중·고생들의 현장학습 장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7월 3일 개장한 다이노 키즈월드 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되어 누적인원 18,500여명의 관광객이 이용했다. 개장 이후 월평균 4,1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모험시설 '스카이 트레일', 암벽

등반시설 '하트 클라이밍', 서바이벌 게임 '베이지테그', '트랩폴링 점프' 등이 설치돼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점이 인기의 비결로 꼽힌다. 또한 날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전천후 실내놀이 체험시설로서 안정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 이곳에는 9월 이후 전주, 군산, 완주, 임실, 남원 등 전북 지역 내 14개 기관·단체가 이용했으며 이외에 공룡테마공원에 더블돌 슬라이드, 미로찾기, 시소 등 놀이시설과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어 아이들의 모험심을 키워주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익산=이득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33억여원 확보

익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약 33억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 272명분에 해당하고 지난해 대비 약 50% 증가한 규모로써, 내년에는 관내 미 취업으로 고민인 청년들은 물론 코로나19로 장기 침체를 겪는 중소기업에 청년 일자리 특수가 기대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 시 연간 최대 2,400만원(자부담 포함)까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유형과, 청년 창업 기업 대상 시제품 개발 등에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시는 1유형에 242명을 지원하며, 청년 알바자 일자리 지원사업 등 내년 초 참여기업부터 모집할 예정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지원

익산시는 임신·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장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 관리 및 돌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정부가 이용요금을 일부 지원하지만,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시는 산모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서비스 기간 15일 기준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30일 이후 출생아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완료하고 본인부담금 신청 시점까지 산모의 주소지가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둔 가정이거나, 또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도 관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익산=이득훈 기자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